

numbers 제 76호



주요 내용

2020. 12.18

1. 이번 주 주제 : [재택근무 시대]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2. 최근언론보도 통계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재택근무’라는 말도 낯선 새로운 근무 형태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났다. 직장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한다는 것은 사실 산업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농업이나 가내 수공업 을 생산 기반으로 하는 전통사회에서는 모든 노동이 재택근무였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재택근무가 사라졌다. 산업사회는 공장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터 에 모이는 생산 시스템이므로 재택근무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재택근무 가 다시 돌아왔다.

재택근무는 단지 근무 형태의 변화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직장과 가정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근무 형태의 변화에 맞도록 직업과 가정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요 청한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전국 5인 이상 기업의 49%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제 76호에서는 재택근무 현황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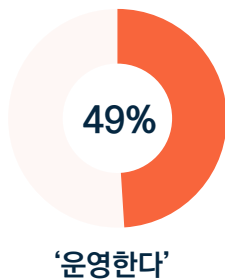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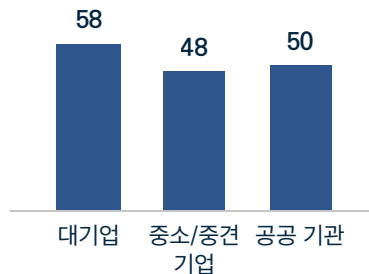
전국 종업원 5인 이상 기업 2개 중 1개 재택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기업 경영의 큰 변화를 갖고 옴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결과(2020년 8월 초 조사)에 따르면 전국 종업원 5인 이상 기업 2개 중 1개 기업 (49%)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기업 문화, 기업 경영 방식의 큰 변화를 갖고 옴
-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은 58%, '중소/중견 기업'은 48%가 재택근무를 실시해서 대기업이 재택 근무 제도를 더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Note : 이 조사 시점이 8월 초인데,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시점이어서 현재 2.5단계 수준을 감안 하면 지금은 기업의 재택근무 비율이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택근무 운영 여부



[그림] 재택근무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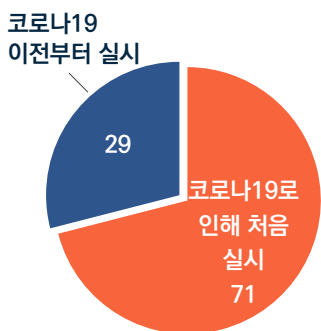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5인 이상 사업장 인사 담당자 400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 재택근무, 10개 중 7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도입

- 재택근무를 언제 처음 도입했는지 질문했을 때, 71%의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실시했다'고 응답했고, 29%의 기업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시했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재택근무를 확대한 결정적 계기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제도가 다시 축소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

[그림] 재택근무 도입 계기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실시 기업 인사 담당자 195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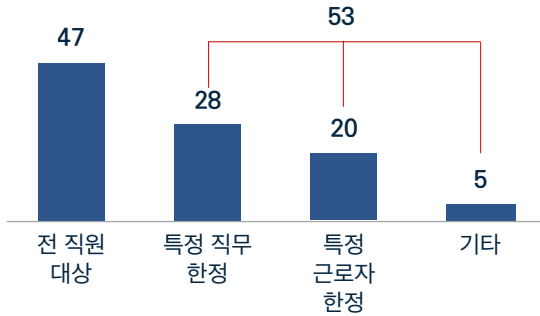
2



재택근무,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 47%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47%로, 재택근무 실시 기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그림] 재택근무 실시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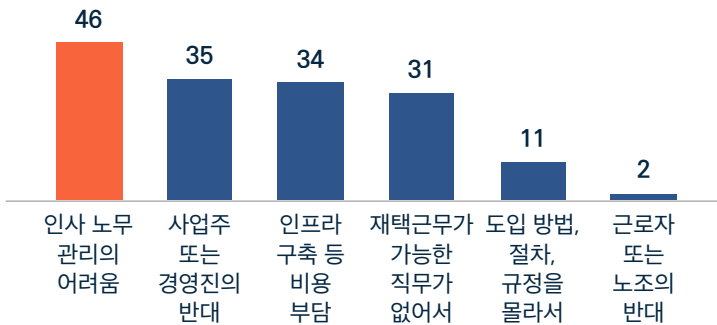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실시 기업 인사 담당자 195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 재택근무 미 운영 기업, ‘인사 노무 관리 어려움 때문에 재택근무 실시 안 하고 있다’ 46%

- 재택근무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은 그 이유로 ‘인사 노무 관리의 어려움’(46%)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진의 반대’(35%),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담’(34%) 등을 꼽음 따라서 재택근무 도입에는 기업 문화와 인사 관리 방법이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택근무 미 운영 기업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합리적 인사/노무 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함

[그림] 재택근무 미 운영 사유(복수 응답)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미 실시 기업 인사 담당자 205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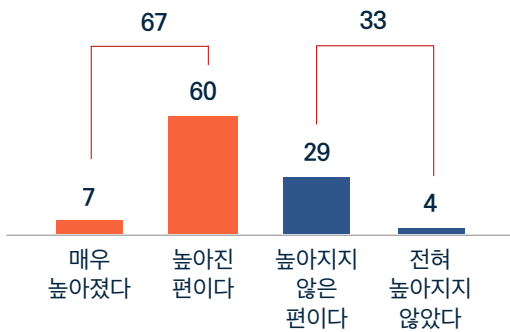
3



기업의 ‘인사 담당자’, ‘근로자’ 모두 ‘재택근무가 업무 효율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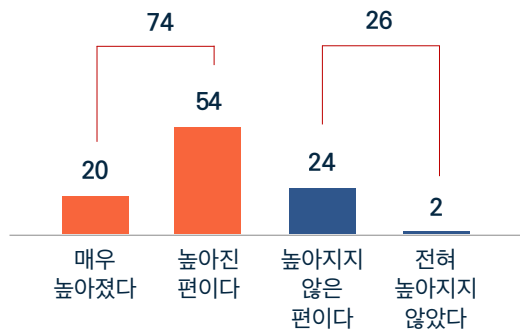
- ‘인사 담당자’의 67%, ‘근로자’의 74%가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재택근무가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데에 기업측이나 근로자 측 모두 동의하는데 근로자가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흥미로운 것은 업무 효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응답을 ‘인사 담당자’는 7%만 했는데 ‘근로자’는 20%나 해서 그 차이가 3배 가까이 벌어진 점인데, 이는 상호 간에 재택근무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효율성(인사 담당자)(%)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실시 기업 인사 담당자 195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그림]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효율성(근로자)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경험 근로자 299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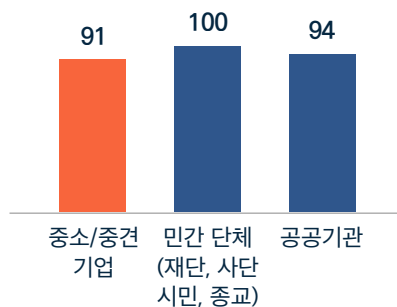
● 재택근무, ‘만족도’ 91%

- 재택근무를 경험한 거의 모든 근로자(91%)는 재택근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유형별로 보면, ‘기업’보다는 ‘민간 단체’(100%)와 ‘공공기관’(94%) 등 비영리단체 근로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음

[그림] 재택근무 만족도(근로자) (%)



[그림] 재택근무 만족도(근로자, 기업 유형별)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경험 근로자 299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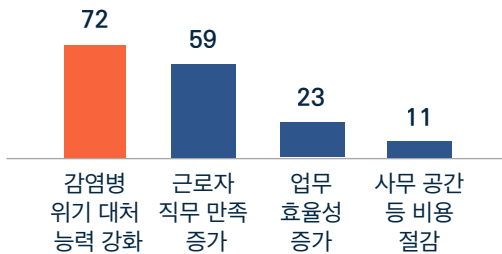
4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 인사 담당자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 강화’ 72%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스트레스 해소’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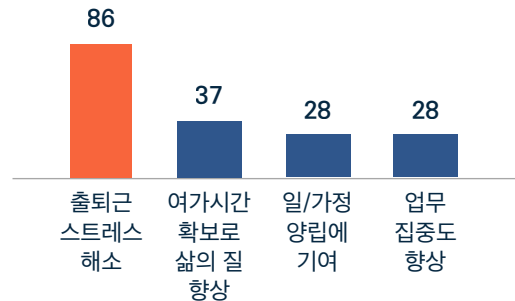
-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로 인사 담당자 4명 중 3명이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 강화’(72%)를 가장 큰 효과로 응답했고, 그 뒤를 이어 ‘근로자 직무 만족도 증가’(59%), ‘업무 효율성 증가’(23%) 순으로 응답함
-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스트레스 해소’(86%)를 압도적으로 응답했고, ‘여가시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37%), ‘일·가정 양립 기여’(28%), ‘업무 집중도 향상’(28%)이 그 뒤를 이었음
- 즉 기업에서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재택 근무의 효과를 보는 반면, 근로자는 ‘여유로운 삶’을 효과로 보고 있음

[그림] 재택근무 긍정적 효과(인사 담당자, 복수 응답, 상위 4위)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실시 기업 인사 담당자 195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그림] 재택근무 긍정적 효과(근로자, 복수 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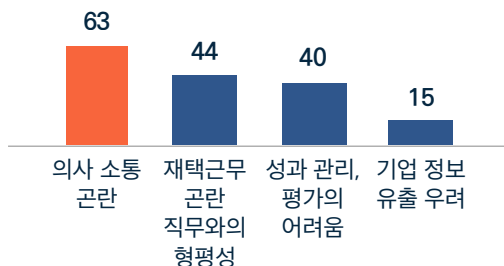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경험 근로자 299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 재택근무의 어려움, 인사 담당자 ‘의사소통 곤란’ 63% 근로자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 모호’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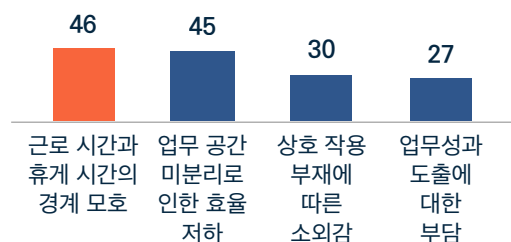
-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인사 담당자는 ‘의사소통 곤란’(63%)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 또한 ‘재택근무 곤란 직무와의 형평성’(44%)과 ‘성과 관리, 평가의 어려움’(40%)도 주요한 어려움으로 꼽고 있음
- 근로자는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의 경계 모호’(46%)와 ‘업무 공간 미분리로 인한 효율 저하’(45%) 등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이 안되는 점을 어려운 점으로 생각함. 그 다음 어려움으로는 ‘상호 작용 부재에 따른 소외감’(30%)과 ‘업무 성과 도출에 대한 부담’(27%) 순으로 조사됨

[그림] 재택근무 시행 시 어려움 (인사 담당자, 복수 응답, 상위 4위)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실시 기업 인사 담당자 195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그림] 재택근무 시행 시 어려움(근로자, 복수 응답, 상위 4위)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경험 근로자 299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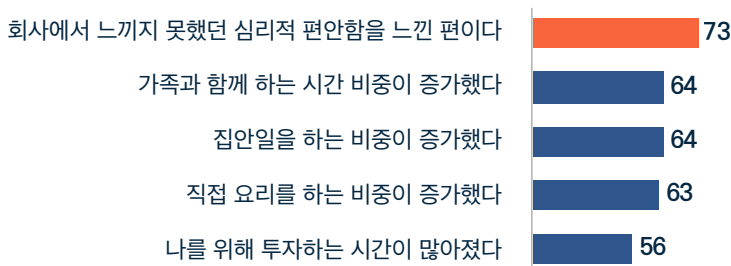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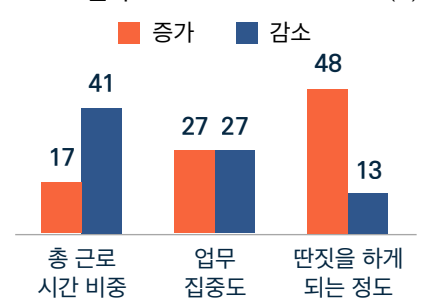
재택근무로 인한 개인적 변화, '워라벨'(Work & Life Balance)향상

- 재택근무를 하면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73%)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64%) 여가 활동이나 자기 계발 등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56%) 응답함
- 또한 직장에서는 총 근로 시간이 줄어들었지만(41%) 업무 집중도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딴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재택근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림] 재택근무 시행으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그렇다') (%)



[그림] 재택근무 시행으로 인한 직장생활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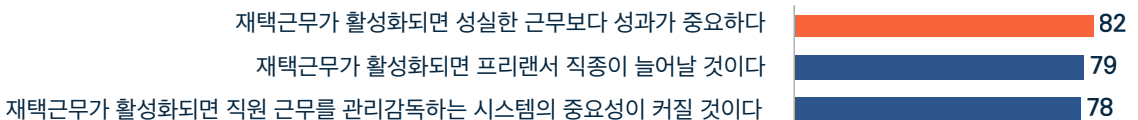
*자료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직장인 재택근무 관련 인식조사', 2020.5.(전국 만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웹&모바일), 2020. 5.20~5.25)

● 재택근무로 인한 직장인 인식 변화, '성실함'보다 '성과'가 중요, 정확한 정보 제공 리더 존중!

-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 평가에서 '성실'보다는 '성과'가 중요해질 것(82%)이라고 인식하면서 근무 자세의 이완을 우려하여 '직원 근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중요해질 것'(78%)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또한 리더의 업무 지시가 구두보다는 메신저와 이메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업무가 명확'해졌고(45%) '모호한 업무 지시가 줄어들었다'고(42%) 함. 그러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리더가 인정받는 사회로 변할 것(79%)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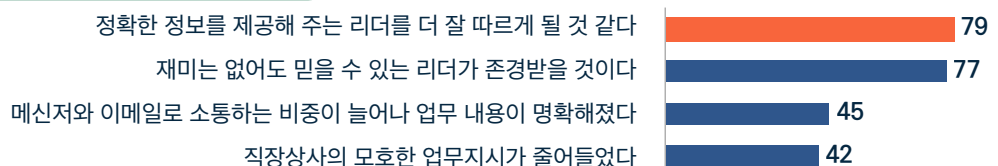
[그림] 재택근무로 인한 사회적 변화 (%)

업무 관련 변화



*자료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직장인 재택근무 관련 인식조사', 2020.7.1.(전국 만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웹&모바일), 2020. 5.20~5.25)

리더십의 변화



*자료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의 과정 관련 조사', 2020.10. 29(전국 만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웹&모바일), 2020. 6.18~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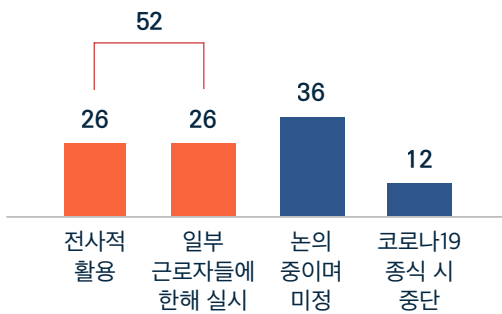
6



재택근무,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시적 제도로 정착 가능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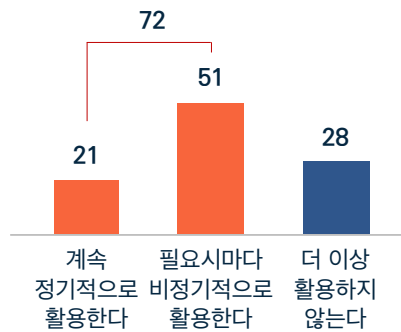
- 재택근무 실시 기업 중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전사적'으로나 '일부 근로자에 한해' 계속 시행할 것이라는 기업은 52%로 높게 나타남
- 근로자들은 '필요시마다 비정기적으로 활용한다'(51%), '계속 정기적으로 활용한다'(21%) 등 재택근무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2%였고,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다'는 28%로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지속하고 싶은 의사가 높았음

[그림] 재택근무 지속 여부(인사 담당자)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실시 기업 인사 담당자 195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그림] 재택근무 지속 여부(근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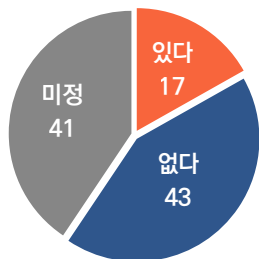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경험 근로자 299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 재택근무 미경험 근로자의 93%, 재택근무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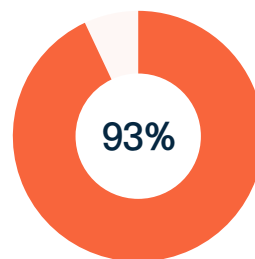
-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향후 도입 의사를 밝힌 기업이 17%밖에 되지 않아서 재택근무에 대한 의사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
- 반면, 근로자들의 절대 다수인 93%가 재택근무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기업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상반된 인식을 보이므로 기업 내에서 노사 간에 재택근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림] 재택근무 도입 의사(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인사 담당자)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인사 담당자 205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그림] 재택근무 할 의향(재택근무 미경험, 근로자) (%)



‘의향 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2020.9.24.
(재택근무 미경험 근로자 579명, 모바일&이메일 조사, 2020.7.30-8.7)



시사점

이번 넘버스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의 49% 기업이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절반가량의 기업이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조사되었다.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 규정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기관/부서별 적정비율(예: 1/5수준)로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기관/부서별로 재택근무를 확대(예: 1/3수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2.5단계에서는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8월 조사 시점이 1단계였는데, 현재는 2.5단계 수준을 감안하면 지금은 앞서서의 49%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재택근무 제도는 이미 시차출퇴근제 등을 포함한 ‘유연근무제’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고정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과 직종이 생겨났다는 것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기업의 1.6%, 2017년에는 4.7%가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재택근무 비율이 미미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현실적 효과에 대해 여러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비대면 사회의 진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많은 기업이 상시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는데 그것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제를 선호하는 근로자와 직원근무 태도와 생산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기업 간의 인식의 차이는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는 두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로 흐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택근무제를 확대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윤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 다스리는 수단이 ‘노동이며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직업이다. 돈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이 시대에서는 직업을 생계 수단, 혹은 자기 욕망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꺾배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름 즉 소명이므로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게으름을 ‘악’이라고 보고 게으른 자를 사회적 기생충이라고까지 비난했다. 재택근무 시대에 상사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어느 장소에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재택근무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집안 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차제에 교회 차원에서 재택근무 시 가정에서 업무 윤리, 부부간, 부모자녀간 신앙 생활에 대한 매뉴얼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재택근무 시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소명으로써 직업윤리를 새롭게 다지고, 한편으로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도와주는 한국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2.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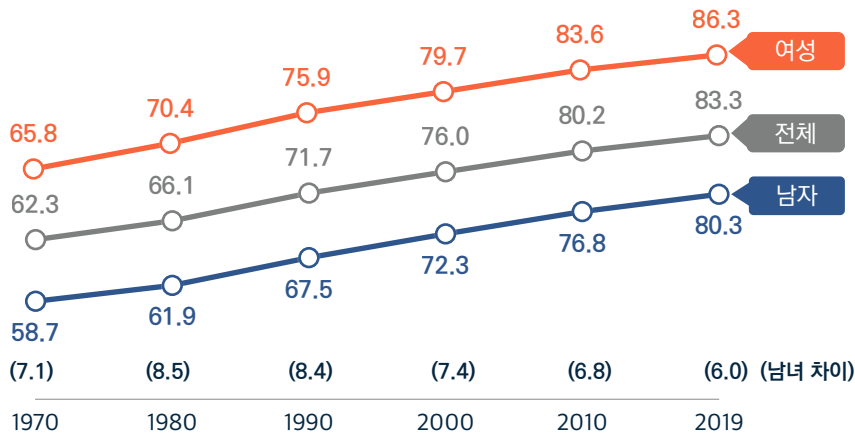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지난 12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3세'로, 전년 대비 0.6세(2018년 82.7세) 증가함
- 성별로는 '남자' 80.3세, '여자' 86.3세로 '여자'의 기대수명이 6.0세 더 많음

[그림] 성별 기대수명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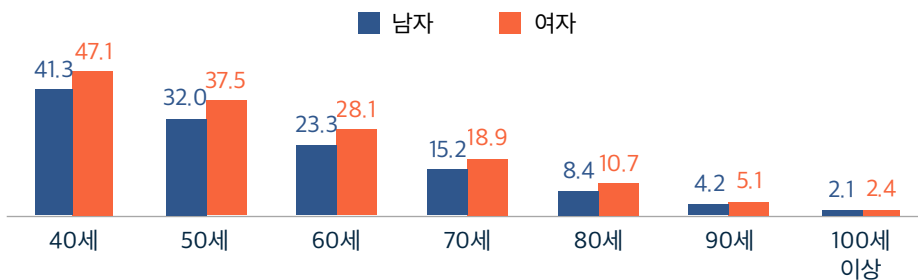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생명표', 2020.12.01.
 **기대수명 :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 현재 60세 남자는 앞으로 23.3년, 여자는 28.1년 더 살 것으로 예상

- 2019년 기준 연령별 기대여명을 측정하였는데, 2019년 '60세 남자'가 향후 23.2년, '60세 여자'가 28.1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됨

[그림] 2019년 나이 기준 성/연령별 기대여명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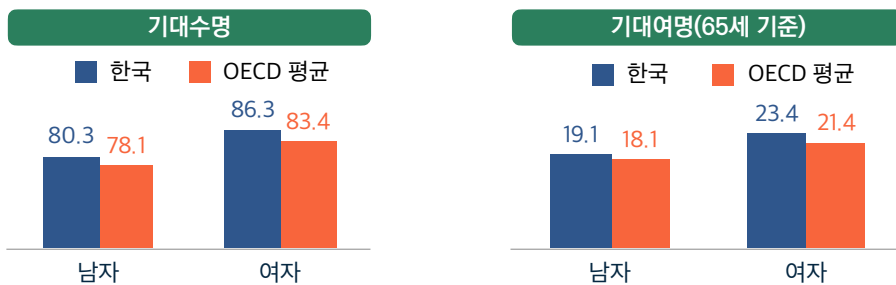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생명표', 2020.12.01.
 **기대여명 :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2세, ‘여자’는 2.9세 더 높아!

-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80.3세)은 OECD 평균(78.1세)보다 2.2년, ‘여자’는 86.3세로 OECD 평균(83.4세)보다 2.9년 높음
 - * ‘남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81.9세)로 ‘한국’보다 1.6세 높음
 - * ‘여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87.3세)으로 ‘한국’보다 1.0세 높음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남자 19.1년, 여자 23.4년)은 OECD 평균(‘남자’ 18.1년, ‘여자’ 21.4년)보다 ‘남자’는 1.0년, ‘여자’는 2.0년 높음

[그림] 2019년 한국의 성별 기대수명(OECD 비교) (세)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생명표’, 2020.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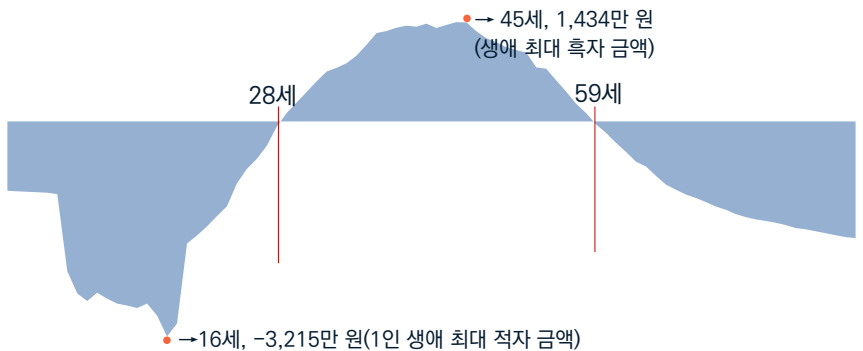
2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다,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통계청이 지난 12월 7일에 발표한 국민 1인당 노동 소득과 소비를 조사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노동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적자 시기’는 27세까지며, 28세부터 58세까지 ‘흑자 시기’로 가다가 59세부터 다시 ‘적자 시기’로 전환됨
- 최대 적자 연령은 ‘16세’ 3,215만 원으로 전년도 2,867만 원보다 348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 소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임
- 28세부터 59세까지는 흑자 시기인데 최대 흑자 연령은 ‘45세’, 1,484만 원으로 전년 1,435만 원 대비 4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인 생애 주기별 손익(노동소득액- 소비액) (만 원)



0세 6세 12세 18세 24세 30세 36세 42세 48세 54세 60세 66세 72세 78세 85세 이상

*자료 출처 :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2019.12.07.

**통계청 자료 그래프와 달리 이해하기 쉽게 적자는 아래로, 흑자는 위로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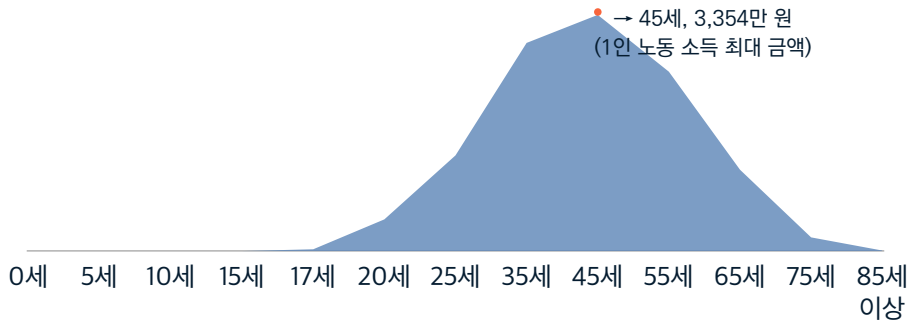
***노동소득은 자본소득과 이전(移轉, transfer) 소득을 제외한 노동 서비스의 수익으로 구성된 소득임

● 1인당 노동 소득은 45세에서 3,354만 원으로 가장 높음

- 1인당 노동 소득은 17세에 25만 5천 원(전년도 55만 5천 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45세에 3,354만 원(전년도 41세 3,209만 원)으로 최대에 이른 후 하락함

[그림] 1인당 노동 소득

(만 원)



*자료 출처 :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2019.12.0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
로
나
1
9

[국민 10명 중 7명 "코로나 백신 나오면 해외여행 가고파"](#)

연합뉴스_2020.12.15.

[한국인 87% "코로나 걸릴까 두려워"...확진보다 더 무서운 건 비난](#)

동아일보_2020.12.11.

[코로나 속 신경정신과·성형외과·안과·피부과 '활황'](#)

연합뉴스_2020.12.16.

사
회
일
반

[6명으로 시작한 '1억 클럽', 12년 만에 2339명... 60대가 32% 다수](#)

조선일보_2020.12.17.

['영끌' 30대가 진 빛 1억, 50대 첫 추월](#)

조선일보_2020.12.18.

[서울시민 86% "우리사회 갈등 심각" ... 주택·경제 분야서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_2020.12.16.

[20대 여성의 극단 선택, 국가는 심각하게 응답해야](#)

중앙일보_2020.12.14.

[가족들 불러 임종에 대해 미리 얘기하세요](#)

조선일보_2020.12.06.

[1인당 택배 주문...1년에 54박스](#)

경향신문_2020.12.11.

경
제
/
트
랜
드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센터, 90%가 비정규직](#)

경향신문_2020.12.16.

[주부도 카페주인도 한 폰이라도 더... 배달 알바 5만 시대](#)

국민일보_2020.12.15.

[날개 돌친 CD판매... '4000만장' 목전 폭발 성장 이유는](#)

한국일보_2020.12.14.

넘버즈 칼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공동체의 역할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종교사회학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호흡기 감염질환은 전세계에서 6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1백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여전히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신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된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섰으나 8·15 집회로 인한 2차 유행과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파가 확산되면서 3차 유행이 일어나는 등 좀처럼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미 사스와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의 발병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홍역을 치렀고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바이다.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했고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과 위험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줄어들고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를 이룬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위험은 성공적인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이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도 증가하기 때문에, 후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에서 위험 요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예외적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파괴는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고 있어 인간의 삶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기후변화로 지구의 물순환이 바뀌고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문명이 빈번한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 19 역시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된 모든 생물이 대대적인 이주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따라서 생태계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인류 모두의 과제이다.

공동체의 중요성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회는 더욱 파편화되고 많은 사회관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극도의 우울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이후 분노, 우울증,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살 관련 데이터가 악화하고 있고, 소득분위 하위계층인 경제 취약층에서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 온 사례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보고

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동체이다. 파괴된 사회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소규모 모임을 활용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그룹은 탈현대 사회의 특징인 유동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소그룹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의 대면 교섭을 통해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대일수록 신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복잡한 사회 변화로 인해 파편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된 사회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을 필요로 하는데, 대규모 집단보다는 소그룹 안에서의 친밀한 교섭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되면 불확실성이 감소함으로써 공공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더 쉬워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소그룹이 실제로 많은 점에서 전통적인 시민 결사체로서 기능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의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소그룹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개인 경건 생활과 소그룹 교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헌금 감소 타격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전염병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교회 성장이나 교인 관리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소그룹 활동을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여 기독 시민의 사회 참여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위험 사회의 극복

이러한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도 구현해야 한다. 교회는 자신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요즘에 주목 받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을 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 활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시민의식은 기독교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독교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결과로 전통의 공동체들이 와해되고 정신적 규준이 무너진 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근본으로부터 변화를 요구하는 현재 상황에서, 삶의 기반을 공유하는 지역사회에서 공동 의식에 터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마을 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됨으로써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인 개교회들이 교회가 터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실천해야 한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낙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신뢰와 연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신앙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중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자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75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볕회